
국제화 출장 결과 보고

2020. 1.

공공주택기획처

||| 목 차 |||

I. 출장개요 1

II. 출장일정 2

III. 출장내용 3

IV. 시 사 점 30

I. 출장개요

☐ 출장목적

- 바르셀로나, 및 리스본시의 건축도시공간 정책수행 방법, 도시설계 시 공공건축가 활용방법, 문화 건축물 보전 방안, 구도심 재생방안 등을 논의하고 국내 적용방안을 모색코자 함.

☐ 방문국가 및 기간

- (방문국가) 스페인, 포르투갈
- (방문기간) '19.12.16 ~ '19.12.24 (7박 9일)

☐ 참석자

성명	직위	소속	비고
강성민	부장	공공주택기획처	-
김남훈	차장		

II. 출장일정

출장일정		출발지	도착지	방문기관	업무수행내용	이동수단 (비행편명)
월일 (요일)	시					
12.16(월)	13:35 ~18:30	인천	바르셀로나	-	공항도착 및 숙소이동	KE0915
12.17(화)	09:00 ~19:00	바르셀로나		Barcelona Activa	▶ 기관협의 (프로젝트 재원확보방안) - 바르셀로나 22@혁신지구로 물류단지 와 산업단지가 복합된 항구지역을 민관 합동사업 추진, 새로운 도시모델 제시	
12.18(수)	09:00 ~19:00	바르셀로나		카탈루냐 건축가협회 (COAC)	▶ 기관협의 (공공건축 사업 프로세스) - Ciutat Vella 공공건축물 답사 - Santa Caterina 시장 리뉴얼 사업 - APPROP 1인 가구 공공임대주택 단지	
12.19(목)	10:00 ~14:00	바르셀로나	Olot/Ripoll	-	-	
	14:00 ~19:00	Olot/Ripoll		RCR 설계사무소	▶ RCR 기관협의 (공공건축가 활용) - 건축의 노벨상인 ‘프리츠커상’ 2회 수상한 건축설계사무소로 현지 건축법 등 제반규정과 프로세스 에 대해 논의 - (대표 건축물 답사) Pabellon del Bano, Estadio Atlético, Tossols Basil, Parc de Pedra Tosca	
	19:00 ~23:00	Olot/Ripoll	바르셀로나	-	-	
12.20(금)	09:00 ~18:00	바르셀로나		EMBT 설계사무실	▶ 기관협의 (도시건축 통합계획) - 바르셀로나에서 40여년 지속적으로 도시건축계획을 수행해온 도시계획 사무소 로, 사업추진 사례를 고찰	
	17:45 ~18:40	바르셀로나	리스본	-	공항이동 및 숙소이동	TP1047
12.21(토)	09:00 ~19:00	리스본		-	▶ 리스본 바이사, La Factory 현장 - 리스본 중심에 위치, 기존 쇠퇴한 산업시설들을 패션, 광고, 미술, 음 악 등에 저렴한 임대료로 개발, 우 리나라의 성수동과 같은 문화·예술 촌으로 지역재생한 사례	
12.22(일)	09:00 ~19:00	리스본		- -	▶ 엑스포지구 (노후시가지 정비 및 복합단지 조성) - 국제박람회의 잔존건물 활용, 주거 · 상업· 업무· 문화의 복합단지 ▶ 벨름지구 - 기존 문화유산과 타구스강을 따라 폐공장들을 리노베이션한 사례	
12.23(월)	09:00 ~16:00	리스본		-	▶ 개인정비 - 오전 개인정비 후, 공항출발	
	20:30	리스본	-	-	-	
12.24(화)	~18:00	-	인천	-	귀국 및 해산	OZ5185

III. 출장내용

1

Barcelona Activa

□ 일시/장소 : '19.12.17(화) 10:00-12:00 / Barcelona Activa

※ 통역 : 한국어 ↔ 스페인어 순차통역(박정수)

□ 참석자

- 우리 측(2인) : 강성민 부장, 김남훈 차장
- 스페인 측 : 베로니카 탄 Veronica Tan(도시진흥고문) 등

□ 주요 논의사항

- 노후 도시지역 재생방안, 스마트시티 조성 등 도시정책 방향
- 간단한 면담 후 현장방문 이동하면서 논의



□ 기관 일반현황

○ 기관개요

- 1986년 설립된 시청 산하기관으로 고용, 산업 및 관광 등 업무담당
- 일자리 창출, 경제발전 및 지역 경제 활성화 등 임무수행
- 시민권한 강화를 통한 도시경제활동 강화, 공정한 경제발전모델 구축 목표

○ 경제기반형 스마트 도시재생 사례 : 22@Barcelona 프로젝트

- 전통 제조업 공장 밀집지역인 포블레노우(22구역) 산업단지를 첨단 산업단지로 재탄생 시킨 프로젝트
- 건물, 거리, 공원 등을 조성하고 미디어, ICT, 에너지 등 지식산업 단지를 건설하여 도시 재생사업을 추진
- 기반시설 조성과 더불어 도시 전반에 사물인터넷(IoT)과 센서, 위치 정보 기반 스마트 주차시스템, 스마트버스 정류장 등을 함께 추진

□ Barcelona 市 개요

- 바르셀로나 市는 바르셀로나와 주변 광역시를 포함한 개념
- 바르셀로나 인구 160만명
- 서비스 업종이 대부분이며 산업분야는 외곽지역에 위치
- 22@ 지구는 방직 산업이 중심이었던 지역임

□ 22@Barcelona 개요

- 바르셀로나의 섬유산업의 몰락으로, 도심이 급격히 쇠퇴함에 따라, 2000년 7월 22@바르셀로나 플랜을 세워 도시재생을 시작
- 22@혁신지구에 1억 8천만 유로를 투자해 5대 핵심산업(정보통신, 미디어, 디자인, 에너지, 의료기술)을 중심으로 공공기관·연구기관·대학교 등을 입주해 혁신클러스터로 조성
 - 산·학·연·관이 협력하는 생태계 조성에 중점을 두고, 각종 공공 데이터를 민간에 개방함으로써 민간개발을 유도

□ 바르셀로나 도시재생

- 도시재생의 대표사례로 거론되는 22@Barcelona 클러스터는 주거 문화, 과학, 생산과 레저가 공존하고 지식집약형 첨단산업지역을 조성하여 새로운 도시커뮤니티 형성을 목표로 추진
 - (1단계) 도시 내 건물, 인프라 등의 기반시설을 조성
 - (2단계) ICT, 에너지 등의 주요분야를 선정하여 클러스터 구축, ICT 관련 R&D센터 집적 및 인큐베이터 기관 유치와 중소기업 및 스타트업을 위한 저렴한 공간제공과 인센티브 부여
- 4,500여개의 기업이 입주, 56,000명의 고용창출 성과 도출
- 지식기반산업의 융복합 성장으로 ICT/IoT 기술을 접목한 스마트 시티 솔루션을 도시곳곳에 구현
 - * 주차정보시스템, 교통/관광정보 제공, 스마트가로등, 스마트 쓰레기통, 스마트위터, 스마트에너지 등을 비롯한 24개 Smart Global Programmes 추진
- 세계 주요도시와 파트너십 형성 및 스마트시티 국제엑스포, 투어프로그램 등 운영으로 홍보에도 주력하여 스페인 자국기업의 해외진출을 지원

□ 바르셀로나 도시재생 시사점

- (인적/기술환경) IT기업체 집적에 따라 스마트시티 솔루션을 구축할 수 있는 천혜의 인적/기술적 환경 구축



- (기업참여) 매력적인 투자 환경으로 인해 세계적인 글로벌 IT/에너지 등 기업이 참여*하고 있으며 바르셀로나에서 추진중에 있는 22개 스마트시티 솔루션 각각에 민간기업이 파트너로 참여

* 예) 2011년 시스코에서 40만 유로 투자

- (도시산업화) ICT 관련 인큐베이터 기관을 유치하는 등 산업을 육성하는 과정에서 스마트시티 솔루션이 도시에 접목되고 발전
→ 집적화 가속 → 글로벌IT 업체 유치 → 솔루션 지속발전/도입
- (장기적 계획) 장기적인 비전과 계획 및 목표설정, 단계별 추진

- 스마트시티 솔루션 도입을 연도별 공정표에 따라 투자하고 관리

* 예) 공영자전거 프로그램 7년간에 걸쳐 시범도입/업데이트

- (거버넌스/총괄관리) 스마트시티 추진 관련 행정조직 일원화 등 거버넌스 체계 확립

- 바르셀로나 시장 주도로 Smart City Strategy team 조직을 시장 직속기관으로 신설하고 총괄관리

- 시영기업인 22@Barcelona 사업회를 구성하여 사업을 주도함과 동시에 민간기업 등 하부 네트워크를 활용

- 교통/에너지/방범/관광/물류/교육/시정/폐기물 등 시정 전반에 스마트솔루션을 접목

2

카탈루냐 건축가(COAC) 협회

□ 일시/장소 : '19.12.20(화) 10:00-12:00 / 카탈루냐 건축가 협회

※ 통역 : 한국어 ↔ 스페인어 순차통역(박정수)

□ 참석자

○ 우리 측(2인) : 강성민 부장, 김남훈 차장

○ 스페인 측 : 필라르 기타르 Pilar Guitar(대외협력담당) 등

□ 주요 논의사항

○ 공공건축 및 도시 프로젝트에서의 공공건축가 역할

○ 한국과 스페인간 건축인력 교류 제안 등



□ 바르셀로나의 총괄건축가와 시장의 협력

1999년 영국왕립건축가협회(RIBA)는 예외적으로 뛰어난 건축적 업적을 남긴 사람들에게 수여하는 로열골드메달을, 건축가가 아닌 바르셀로나 시에 수여했다. 바르셀로나 시는 당시 올림픽을 준비하면서 올림픽 스타디움이나 선수촌과 같은 대형 프로젝트뿐만 아니라 도시 내 소규모 공원들, 학교와 병원과 같이 도시민의 삶에 가까운 프로젝트를 고루 발전시켜 왔다.

영국 왕립건축가협회는 이러한 바르셀로나의 변화를 두고, 건축적 전통 안에서 대형 프로젝트뿐만 아니라 작은 프로젝트들이 어우러진, 새로운 탄생을 일구어 냈다고 평가했다.

다음 심사위원장의 발언은 거대한 유명 프로젝트보다는 시민의 생활공간으로서 도시의 종합적인 발전에 더 큰 가치를 부여하고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도시를 아우르는 전체적인 목표나 기획은 지역적이고, 예산도 별로 많지 않았지만, 그 여파는 크다. ... 올림픽 개최는 단지 이러한 바르셀로나의 확장이다. (일부가 아닌) 도시 전체의 발전을 위한 전략은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 바르셀로나는 이제 모든 면에서 더 큰 하나가 되고 있다. ... 과거와 현재, 일터와 놀이는 이제 새로운 통합성 (totality) 속에서 서로 엮이고 있다.”

이 상을 수여할 때 호명된 주요인물들은 바로 바르셀로나의 전현직 시장들(Narcís Serra, 1979-82; Pasqual Maragall, 1982-1997; Joan Clos, 1997-2006)과 오리올 보히가스(Oriol Bohigas)라는 한 건축가였다. 시장들 중 가장 이른 시기에 재임했던 Narcís Serra는 프랑코 사후 바르셀로나의 첫 번째 민선시장이었다. 중앙집권적인 성격이 강했던 프랑코

정권이 끝나자 바르셀로나는 바르셀로나의 지역성과 정체성을 찾고자 하였으며, 이러한 과정에서 바르셀로나의 시장들은 건축과 도시 프로젝트들을 통해서 바르셀로나의 민주화와 문화적 발전을 보여주고자 하는 강력한 의지들을 보였다. 안전한 도시, 근린 단위의 시민공원들, 도시 전역에서 벌어지는 시민축제와 행사를 위한 공간들은 바로 도시의 공공성을 물리적으로 보여주는 장치들이 되었다.

오리올 보히가스는 당시 바르셀로나 시의 행정부에서 도시 및 건축 담당부서의 총괄역할을 맡고 있던 건축가였다. 보히가스는 시장들의 이러한 비전들을 실제 프로젝트의 기획과 추진으로 연결시키는 역할을 했다.

실제 개별 건물과 공원들을 설계하는 사람은 아니었지만, 그 프로젝트가 일어날 수 있게끔 한 사람은 바로 보히가스였다. 새로운 바르셀로나, 역사적, 지역적, 문화적 가치를 드러내면서도 시민을 위한 도시로서 바르셀로나를 만들기 위해 필요한 프로젝트들을 발굴하고, 기획하며 이를 담당할 건축가를 선정하거나 공모전을 준비하는 역할을 했다.

특히 바르셀로나가 올림픽을 개최하게 되면서 도시개발 사업들은 더 활발해졌으며 그 규모도 커졌다. 이 과정에서 도시의 여러 크고 작은 사업들을 총괄하며 바르셀로나 도시 및 건축 사업의 전체적인 그림을 그리는 것은 보히가스의 역할이었다.

당시 바르셀로나의 도시 및 건축을 통한 재탄생 과정은 바로 다음 네 가지 요소를 바탕으로 한다.

- ① 거시적 관점에서 도시의 방향에 대한 목표와 비전 : 민주적인 바르셀로나의 문화적 역량
- ② 이를 실행하기 위해서 몇 개의 개별적인 프로젝트들이 아니라 도시 전체의 통합적인 관점에서 기획과 추진 : 도시의 랜드마크는 물론 소규모 공공공간 재생까지 기획 추진
- ③ 이를 실천할 수 있는 행정적인 실행력 : 시장의 강력한 지원

④ 마지막으로 이를 성공적으로 이끌 수 있는 전문적인 역량 : 전문가 출신의 도시건축 분야 담당자

바르셀로나 시장과 전문가인 보히가스의 강력한 협력관계를 바탕으로 비전, 행정적 실행력, 전문적 역량의 결합이 바로 바르셀로나의 성공을 이끌었으며, 실제 보히가스는 수상소감에서 오늘날 도시는 건축가와 도시계획가에 의해서만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시민이 뽑은 정부 역시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점을 언급하기도 했다.

1979년 첫 민선시장의 선출, 1980년 보히가스가 바르셀로나 시 정부에서 활동하기 시작한 이후 올림픽을 거치면서 바르셀로나의 성공은 국제적으로도 널리 알려지게 되었다. 실제로 영국의 건축가 리처드 로저스는 바르셀로나의 건축위원회 일원으로 참여하며 바르셀로나의 사례를 보고 시의 행정부와 도시 및 건축 전문가의 결합이 보여주는 효과를 깨달았으며, 이후 2000년 런던광역시(Great London Authority)가 수립되었을 때 첫 번째 시장이었던 켄 리빙스턴과 협력관계를 구축하여 바르셀로나와 같은 시장-건축가 관계를 도입하고자 한 바 있다.

1999년 바르셀로나는 보히가스의 성공적인 업적에 따라 새로 총괄건축가(Arquitecte enCap)제도를 도입하였다. 새로운 총괄건축가는 보히가스와 마찬가지로 시장과 협력하여 시의 비전과 목표에 따른 도시환경의 발전방향과 이를 실천하기 위한 프로젝트들을 기획, 추진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하지만 보히가스와 달리 시 정부의 특정부서를 담당하는 공무원이 아니라 독자적인 지위를 갖는 민간전문가 신분이다. 독자적인 지위를 갖는 만큼 건축과 도시에 관련된 부서뿐만 아니라 교통, 에너지, 문화 등 건축 및 도시와 관련될 수 있는 다른 부서들의 프로젝트에도 참여할 수 있다.

특정부서가 아닌 모든 부서에 참여할 수 있다는 점은 자칫하면 아무런 부서에도 영향력이 없다는 이야기가 될 수 있는데, 바르셀로나의 경우에는 시장과 총괄건축가의 굳건한 협력관계를 바탕으로 총괄

건축가의 기획이나 아이디어가 실제 행정조직 내에서 영향력이 있도록 시장이 지원하고 권한을 부여한다. 바르셀로나 시장과 총괄건축가의 협력 관계는 시장이 선거 전 아직 후보자 신분일 때부터 이루어지기도 한다. 현재 바르셀로나의 총괄건축가는 시장 선거 당시 후보자와 도시 발전에 대한 비전을 공유하고 파트너십을 맺었으며, 이 후보자가 당선되면서 총괄건축가가 되었다.

1999년 총괄건축가제도가 도입된 이래 지금까지 총 세 명의 총괄건축가가 활동해 왔다. 임기가 정해진 것은 아니며 계약에 따라 다르지만, 첫 번째 총괄건축가와 두 번째 총괄건축가는 6년 정도씩 활동해 왔다. 바르셀로나 총괄건축가제도에서 시장과 총괄건축가의 협력관계가 가장 중요하지만, 지금까지 모든 총괄건축가들이 시장과 협력관계를 맺었던 것은 아니었다.

첫 번째 총괄건축가였던 아세비요(Josep Acebillo)는 행정조직 상에서 시장의 지원을 직접 받았다면, 두 번째 총괄건축가였던 클로스(Oriol Clos)는 바르셀로나에서 도시 및 건축을 담당하는 행정 부서의 장인 매니저와 작업을 했다. 당시 시장은 전임자에 비해 상대적으로 건축과 도시에 대한 관심이 적었다. 그 결과 전임자였던 아세비요에 비해 다루는 프로젝트의 범위도 줄어들게 되었으며, 프로젝트 추진과정에서도 여러 난관에 부딪치게 되었다.

현재 총괄건축가인 구알라트(Vincente Guallart)는 세 번째 총괄건축가로서 도시 및 건축을 담당하는 제3부시장과 협력관계를 맺고 있어, 전임자에 비해서는 업무 추진이 훨씬 쉬워졌다고 한다. 세 명의 총괄건축가의 지위는 총괄건축가가 자신의 전문적 역량을 효과적으로 펼쳐 보이기 위해서 총괄건축가와 행정조직과의 협력관계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 수 있는 부분이다.



바르셀로나 행정조직과 총괄건축가의 관계

□ 바르셀로나 총괄건축가의 역할

그렇다면 바르셀로나의 총괄건축가가 현재 구체적으로 무슨 일을 하는가. 바르셀로나 시청에 따르면, 바르셀로나의 도시 발전을 위한 기준을 제안하고 도시개발 사업을 제안하는 역할을 한다. 현재 바르셀로나 총괄건축가는 바르셀로나 시를 위해 도시의 녹지축 확보, 주거와 근린 재생, 스마트 시티, 바르셀로나 해안지역 개발과 같은 주요 주제들을 제시하고 이를 위한 구체적인 사업들을 기획하고 있다. 이러한 사업들은 한 건축가의 기획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실천으로 이어지며, 또한 각 사업들은 독립적인 것이 아니라 서로 유기적으로 얹혀서 이루어진다.

바르셀로나의 주요사업 중 하나로 스마트 시티 캠퍼스가 있다. 바르셀로나 시와 Cisco 등 주요기업들이 Plaça de les Glories 지역 주변에 큰 규모의 연구산업 단지를 조성하며, 가로시설물 등은 모두 통신 기반시설이 된다. 이 사업은 시와 기업 사이의 협력을 넘어 새로운 첨단 산업도시를 목표로 하는 바르셀로나 시 정부와 통신 네트워크가 도시의 새로운 인프라스트럭처로서 도시의 새로운 비전을 보여줄 것이라는 바르셀로나 총괄건축가의 지향이 구체화되어 나타난 사업이다. 현재 총괄건축가인 구알라트는 1980년대와 90년대 보히가스의 시

대가 도시의 공공공간 및 올림픽 기반시설 등 물리적 건설을 통해 도시의 가치를 증명해내는 시대였다면, 이제는 소프트웨어적인 측면에서 도시의 발전을 도모해야 하며, 그중 하나로 정보통신의 가능성을 꼽고 있다. 스마트 시티 캠퍼스는 이러한 총괄건축가의 구상이 실제 가시화되어 나타난 사업이자 도시의 미래라는 소프트웨어가 도시의 물리적 공간과 만나 생성된 하나의 통합된 패키지이다.



바르셀로나 스마트 시티 캠퍼스

또한 이 프로젝트는 물리적으로도 총괄건축가의 다른 사업, 바르셀로나의 새로운 녹지축과 연결되어 있다. 바르셀로나 총괄건축가는 Plaça de les Glories 지역을 중심으로 방사형으로 뻗어가는 녹지축들을 제안한다. 바르셀로나는 19세기 중반 세르다(Cerda)가 제시한 그리드 체계로 이루어졌으며, 이 그리드 위에 몇 개의 큰 대각선이 가로지르고 있어서 부분적으로 방사형 구조가 만들어졌다. 현재 바르셀로나 총괄건축가는 이러한 역사적인 도시 구조위에 중첩된 녹지축을 제안한다. 그리고 이러한 녹지축들이 교차하는 Plaça de les Glories가

구도심과 해안지역, 그리고 새로운 고속철도 역사 부근 지역을 연결하는, 도시의 새로운 중심 지역이 된다. 또한 바르셀로나 시의 또 다른 주요 사업인 새로 짓는 고속철도 노선 및 역사는 철도 부분을 지하화하여 녹지축 및 기존의 도시 그리드를 보존한다. 이와 같이 바르셀로나의 여러 프로젝트들은 개별적인 것들이 아니라 바르셀로나 시와 총괄건축가가 세운 비전과 목표를 향해 서로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진행된다.

□ 바르셀로나 공공건축 총괄담당자

바르셀로나 총괄건축가는 시에서 이루어지는 공공건축을 총괄·관리하는 역할을 한다. 이를 위한 바르셀로나 총괄건축가의 역할은 크게 세 가지이다. ①먼저 바르셀로나 시내뿐만 아니라 스페인 전역, 심지어 해외에서 온 전문가들로 구성된 위원회를 주관, 운영하며 바르셀로나에서 진행되는 주요사업들에 대해 심의기능이 있는 자문역할을 한다. ②두 번째로 바르셀로나에서 진행되는 공공사업들에 대해 공공건축 발주관련 위원회를 주관하여 일정금액 (18,000유로) 이하는 직접 수의계약을 통해 건축가를 선정하기도 하며, 설계공모전이 열릴 경우 공모전의 기획, 운영을 담당한다. ③그리고 마지막으로 바르셀로나 총괄건축가는 공공건축 사업의 사전기획을 검토한다. 바르셀로나 시 정부 및 관련기관에서 공공건축 사업을 추진하고자 할 때, 기획단계에서 프로젝트의 내용이나 운영계획 등을 담은 프로젝트위원회 예비문서를 총괄건축가에게 제출하도록 되어 있으며, 총괄건축가는 이를 검토하고 의견을 제시한다.

□ 일시/장소 : ‘19.12.19(목) 10:00-16:00 / RCR 설계사무소 (Olot 시)

※ 통역 : 한국어 ↔ 스페인어 순차통역(박정수)

□ 참석자

○ 우리 측(2인) : 강성민 부장, 김남훈 차장

○ 스페인 측 : 2017 프리츠커상 수상자 카르메 피엠 (Carme Pigem) 등

□ 주요 논의사항

○ 지역주의 건축과 이를 기반으로 한 공공건축 사례

○ 간단한 면담 후 현장답사



□ 서 론

RCR Arquitectes는 라파엘 아란다(Rafael Aranda), 카르메 피헴(Carme Pigem), 라몬 빌랄타(Ramon Vilalta) 총 세 명의 건축가들로 이루어진 스페인 건축사무소로, 2017년 프리츠커상을 수상하였다.

그들은 카탈루냐 지방 인구 3만의 작은 도시인 올롯(Olot)을 기반으로 활동한다. Equilibrium(균형, 평형)은 그들의 건축 작업의 근본적인 바탕이 되는 개념이다. 그들은 올롯의 인간과 자연, 서로 상반되는 두 존재가 공존하는 지역 특유의 경관적 조건을 통해 일상적인 삶의 경험에서 영감을 얻는다고 말한다. 모더니즘 이후 현대건축에서 지역적 가치와 지역문화는 상대적으로 간과되어 왔다. 프리츠커 심사 위원들은 그들이 자신들이 자라난 고향에 뿌리를 두고 세계로 뻗어나가는 방안을 제시한 점을 높이 평가했다.

RCR Arquitectes는 자신들의 체험적 경험이 존재하는 고향에서 건축 활동을 시작하였다. 그들은 감각적 체험을 중요하게 생각했기 때문에 건물을 단순히 오브제로 보지 않았고, 장소는 주변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관계를 맺는다고 생각했다. 이들이 추구하는 균형의 개념은 모든 건축적 행위에서 나타나며, 이 개념을 건축에 적용하기 위한 여러 요소들이 RCR Arquitectes만의 정체성의 바탕이 되었다.

□ RCR Arquitectes 건축 분석

○ RCR Arquitectes 건축의 배경 - 영감의 원천 올롯(Olot)

Rafael Aranda, Carme Pigem, Ramon Vilalta는 1980년대에 스페인 바르셀로나의 발레스 건축학교(ETSAV)를 졸업 하였다. 당시 카탈루냐의 대다수의 건축가들은 대도시인 바르셀로나에서 활동했

지만, 세 명의 건축가는 자신의 가족들이 살고 있는 고향 올롯으로 돌아가 RCR Arquitectes를 창립하였다. 그들은 유년시절의 기억과 그곳에서 경험한 감각적 체험들에 더 끌렸고 자신들의 삶의 터전에서 일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여겼다. 건축에 대한 열정만큼 자신의 개인적인 삶도 중요하게 생각하며, 그 둘의 균형을 유지하며 살아가려 노력했다.

그들은 “우리 모두에게는 '우리의 기원(origin)'이 있으며 다른 곳으로 이동해도 변하지 않는다. 장소, 기후, 문화와 상관없이 자신의 기원을 이해하고 존중하는 것은 중요하다” 고 말한다. 그들은 다른 건축가와 동등하게 세계성에 관심이 많지만, 자신의 건축이 특정한 위치에 뿌리를 깊이 내리고 뿌리와 날개를 다 가진 건축을 하길 바란다.

올롯은 카탈루냐지역의 히로나(Girona)주 가로트하(La Garrotxa) 지역의 도시로 지중해 연안과 피레네 산맥 사이 인 이베리아 반도의 북동쪽에 위치해 있다. 플루비아 (Fluvia)강이 지역을 가로지르며 초원과 울창한 숲으로 대 부분 덮여있고 습한 기후가 특징이다. 또한, 올롯은 이베리아 반도에서 가장 웅장한 화산지대 자연공원으로 둘러싸여 있다. 수천 년 동안 휴면 중인 약 40개의 화산으로 인해 용암과 화산재의 흔적이 남아있는 독특한 지형을 가지고 있다. Malagrida'(1916-1925) 도시계획은 주거지역 중심의 올롯에 풍부한 녹지를 제공하였다. 대도시에서는 볼 수 없는 산과 계곡을 쉽게 접할 수 있을 뿐 아니라 바다, 화산지대, 호수 등 전혀 다른 풍경을 근거리에서 모두 경험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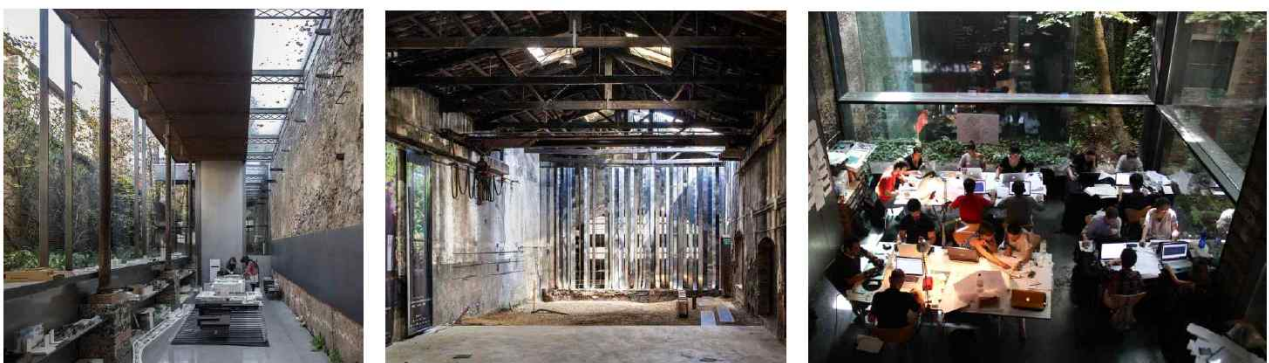
RCR Arquitectes는 이러한 올롯의 독특한 환경에서 많은 영감을 얻었다. 자연과 농가들 의 공존하는 환경에서 자란 그들은 사람과 대지의 균형, 건축과 경관의 균형적 관계를 직관적으로 인식하는 능력을 갖게 되었다고 한다.

○ RCR Arquitectes의 세계, 바르베리 연구실(Barberi Space)

올롯에 위치한 그들의 사옥 '바르베리 연구실'은 오래된 주물공장

을 리모델링하여 사용되어지고 있다. 세월의 흔적이 느껴지는 공장의 건축자재인 목재, 돌, 세라믹과 리모델링하면서 추가된 철재, 유리 와 대조를 이룬다. 이곳은 히로나에서 가장 오래된 역사를 지닌 공장단지로 주로 교회의 청동 종, 예술가들의 조각품 등이 제작되었다.

이곳에서는 낡은 벽, 그을려진 천정, 용광로 굴뚝, 외부에 남겨진 종 등을 통해 당시의 역사를 그대로 느낄 수 있다. 넓은 유리를 통해 시각적, 공간적으로 외부의 자연과 연결된다. 이 장소는 낡은(old)/새로운(new), 외부(outdoor)/내부(indoor), 부식(erosion)/정밀(precision), 고고학적 발굴(aechnaeological excavation)/디지털 형상화(digital imagery), 기억(recollections)/꿈(dreams), 놀이(play)/진지함(seriousness) 등 대조적인 요소가 균형을 이루며 영원히 미완성적인 단계를 유지하고 있다. 다양한 문화와 창의력을 공유하는 바르베리 연구 실은 RCR Arquitectes만의 색깔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는 곳이며, 주변 경관을 이해하고 장소와 관계를 맺는 “평형”을 가장 잘 드러내고 있다.



Unified spaces with nature in Barberi Space

RCR Arquitectes의 세 명의 건축가는 1987년에 학교를 졸업하고 Ramon Vilalta 자택에서 작업을 시작하였다. 그때부터 지금까지 그들은 규모와 상관없이 모든 프로젝트에 대하여 서로의 의견을 공유한다. “공유된 창의력 (Shared Creativity)”이라는 제목으로 전시를 기획할 정도로 서로간의 의견 공유를 중요하게 생각한다. 바르베리 연구실 2층의 세 사람의 공간에는 커다란 테이블이 중앙에

배치되어 있다.

세 명의 건축가는 개별 사무실을 갖고 있지 않으며 이 테이블을 서로 공유하며 프로젝트에 대한 모든 논의가 이 공간에서 이루어진다. 매일 아침 간단하게 서로의 의견을 교환하는 것을 시작으로 사무실의 직원들과 회의를 하고 현장에 나간다. 건축은 다른 전문분야에 비해 종합적인 사고가 기본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또한, 건축적인 표현 외에 미술, 회화, 조소 등 여러 분야와 관계를 맺어야 창의적인 면에서 더 큰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다고 말한다. 이러한 협동적인 환경은 그들이 말하는 가장 이상적인 균형을 찾아갈 수 있도록 도왔다. 장소의 관계에 대한 세 사람의 경험과 이해력이 서로 공유됨으로써 시너지가 발생했다고도 생각된다.

○ RCR Architectes 건축의 특성

자신의 고향에서 영향을 받은 RCR Architectes의 건축은 그들만의 지역성을 적용한 건축이다. 그중 가장 두드러지는 특징들을 토포필리아(Topophilia), 단일한 재료, 그리고 건축의 확장성으로 분류할 수 있다. 이 세 가지는 독립적으로 나타나기보다 서로 상호작용하며 조화를 이룬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건축과 경관(landscape)의 관계성, 토포필리아

RCR Architectes가 건축작업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주변 경관과의 관계성, 즉 균형 (equilibrium)을 이루는 것이다. 건축이 자연에 속하거나 자연이 건축에 속하는 포함 관계를 말하는 것이 아니다. 두 개념 사이의 경계를 허물어 대등한 관계를 유지한다는 뜻으로 사람과 자연의 공존을 의미하기도 한다. 그리고 기존 환경 속에서 건축이 일부가 되어 새로운 경관을 형성할 때 전혀 낯설지 않을 때 진정한 의미의 관계를 맺었다고 할 수 있다.

균형을 유지하기 위해 그들 이 추구하는 것은 그 장소에 '뿌리를 내린(rooted)' 건축이다. 건축가가 주변 환경을 직접 체험하고 이해하며 계획한 건물이 그 장소의 잠재적 가치를 드러내 활력을 얻는

과정을 통해 장소성을 부여하는 것이다. 스위스 건축가 페터 Zumthor(Peter Zumthor)도 건물이 시간이 흐르면서 자연스럽게 그 장소의 형태와 역사의 일부가 되는 건축을 추구한다. 그는 개입의 정도를 높이기 위해 기존 상황과 의미 있는 대화를 할 수 있는 속성이 건물에 부여되어야 한다고 말한다. RCR Architectes의 작업은 특정한 동시대의 시류, 찰나의 유행, 첨단과학 등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 대신 환경과의 깊은 관계, 삶에서 느끼는 가치와 감정을 물리적으로 표현하며 시공간을 뛰어넘는 균형의 건축을 지향한다고 한다. 이러한 개념은 그들의 살고 있는 작은 도시에서 제공된 경험을 근간으로 하며, 지역성과 보편성 사이의 균형을 유지하는 기반이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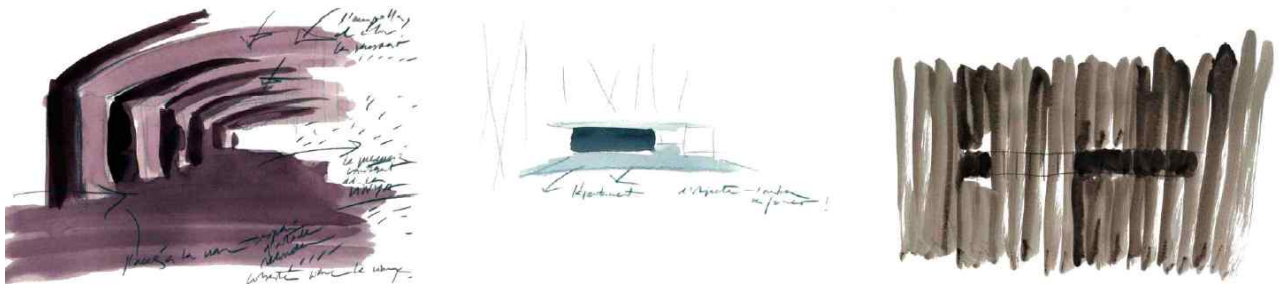


건축과 자연의 관계성 - 토포필리아

인공과 자연의 균형을 이루기 위하여 그들은 모든 프로젝트를 수채화 물감 스케치로 시작하여 아이디어를 담아낸다. 이 다이어그램 또는 기호는 그들만의 특징으로 자리 잡았으며, 장소와 초기 아이디어를 처음으로 연결하는 과정이라고 한다. 기존의 지식에서 벗어나 오로지 장소를 이해하면서 떠오르는 직관적인 생각은 구체적인 형태나 하나의 단어로 표현할 수 없기 때문에 빠르고 자유로운 방법이 필요하다.

이 과정은 그와 부합하는 아주 중요한 기록으로 건물의 위치, 대지와 관계, 부피, 공간의 시퀀스, 텍스처 등을 표현 하는데 가장 적합한 도구이며 프로젝트에 대해 여러 가지를 암시하는 단계이다. 그들의 건축은 형태적으로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고 가끔은 투명하고 한계가 없으며 주변 경관 속에서 사라지는 비 물질화적인 특성

이 있다. 이러한 특성은 직관적인 그들의 스케치를 통해 가능해 진다고 볼 수 있다. RCR Arquitectes는 설계를 처음 시작 할 때 특정한 전제나 참고자료를 활용하지 않는다고 말한다. 그 장소에 적합한 모든 건축적인 요소는 환경을 이해하고 체험하는 과정 속에서 나타나기 때문이다.



건축과 자연의 관계성 - 직관적인 수채화 스케치

자연은 항상 건축의 가장 중요한 배경이자 건축으로 인해 훼손되는 대상이다. RCR Arquitectes의 건축작업에서 자연은 지형, 빛, 기후, 하늘, 물, 비, 바람, 식물 등 일 반적으로 떠올리는 자연의 범주를 넘어선다. 그들은 자연과 일정한 거리를 유지하기를 바라며 그것을 지배하거나 부각시키는 것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의 평화로움에서 '공생(symbiosis)관계'를 유지하기를 원한다.

그들은 계절의 변화, 시간의 흐름 등 자연적인 형상을 실내에서도 지각할 수 있도록 내 외부의 경계를 흐릿하게 하여 자연스럽게 건축으로 침투하도록 한다. 그들의 건축은 단순한 구조체 이상으로 주변 환경을 다른 시각으로 바라보게 하는 매개적 역할을 하며 감각적인 경험을 심화시킨다. RCR Arquitectes는 일본을 수차례 방문하면서 일본의 전통건축과 자연의 연관성에 매혹 되었다.

그곳에서 내외부의 관계가 모호하고 부드러우며 자연과 건축이 서로 상호작용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았다고 회고한다. “일본에서의 경험이 우리의 삶에 흔적을 남겼으며 그런 영향은 우리 건축에도 분명히 나타나 있다.” 며 자연에 대한 그들의 철학과 일본의 전통건축 간의 깊은 연관성을 이야기한다.



건축과 자연의 관계성 - 자연과 공생하는 관계

RCR Architectes의 프로젝트를 살펴보면 형태가 전반적으로 수평적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다. 그들이 수평성(horizontal)을 처음부터 의도하고 시작한 것은 아니지만 경관과의 관계를 고려할 때 직관적으로 수평적인 형태로 귀결된 것이라고 한다. 같은 장소라도 대지와 접하는 면적이 넓은 차별한 형태가 대지와 좀 더 강한 연결 고리를 맺게 한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이러한 수평성은 그들의 건축이 장소에 자리매김을 하는 하나의 개념적 도구라고 볼 수 있다. 그들이 또한 자주 사용하는 조형은 경관의 경계를 짓는 프레임(frame)과 이 구조를 통해 생기는 보이드(void) 공간이다.

프레임은 공간을 열어 주기도 하지만 우리가 보는 시야를 한정 짓는 이중적인 역할을 한다. 실내에서 보이는 경관을 액자와 같은 틀을 통해 포착함으로써 더 집중시키고 깊이감을 준다. 그들은 보이드 공간을 통한 직접적인 개방감 대신 유리, 막 또는 연속적인 지층 등을 통해 들어오는 빛과 공기, 경관에 미묘한 변화를 주는 필터(filter) 효과를 적용하기도 한다.



건축과 자연의 관계성 - Architectural characteristics for placeness

○ 단일한 재료의 사용

RCR Arquitectes가 거의 모든 프로젝트에 주재료로 철을 사용한다. 철은 그들의 정체성을 나타내는 핵심적 요소 중 하나이다. 오직 철로만 만들어진 그들의 프로젝트는 재료 중심적이기도 하지만 경관과의 조화적인 면에서는 비재료적이라고 표현한다. 그들은 재료 본연의 물성이 시각적으로나 촉각적으로 자연스럽게 느껴지도록 사용되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한다.

본연의 물성 그대로 만들어진 건물이 시간이 지나 부식되고 녹이 슬게 되는 것이 오히려 건물을 더욱 아름답게 만들며, 건축이 그 장소에 완벽히 적응하여 주변 경관과 일치하게 되는 시점이라고 말한다. RCR Arquitectes는 재료의 속성을 완벽히 파악하여 그 자재만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특성을 사용자가 온전하게 느낄 수 있도록 항상 노력한다. 건축가 페터 Zumthor 역시 “경관 속에 무언가를 지을 때 건물의 재료는 오랫동안 그곳에 있던 주변의 소재와 자연스럽게 어우러지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 고 말한다.

그는 RCR Arquitectes와는 달리 단일한 재료만을 고집하지는 않지만 건축재료의 무한한 속성을 파악하여 수천 가지의 가능성을 발산시키려 한다는 점에서 RCR Arquitectes와 유사하다. RCR Arquitectes도 처음부터 철을 사용한 것은 아니다. 초창기 작품에서 그들은 센티미터 단위가 아닌 소수점 단위로 그들의 건물을 정밀하게 설계하기를 원했지만, 콘크리트를 그들의 바람대로 정확하게 제어하기는 어려웠다. 하지만 철은 그들이 원하는 방식으로 제어하기가 수월했고, 섬세했으며 수공예적인 그들의 감각을 잘 받아주는 재료였다.



Single material

○ 건축의 확장성

RCR Architectes의 건축은 장소에 뿌리를 내리고 있다. 건축이 하나의 경관으로 자리를 잡게 되면 더 이상 독립적으로 볼 수 없으며 반대로 장소와 격리된다면 건축은 존재하기 어렵다. 그들의 건축은 주변 환경과 사람과 복합적으로 연결되며 건축의 정체성이 모호해진다. RCR Architectes의 건축물은 건축 또는 조경(landscape), “생태적 (ecological)”, “자연적(natural)” 프로젝트,

또는 대지 미술 (land art) 등 한가지로 쉽게 정의 내릴 수 없다. 따라서 그들의 건물을 방문하는 사람들도 그 안에 서 자유롭게 행동할 수 있으며 사용하는 방법에 따라 그들의 건축은 다양한 기능을 갖게 된다. RCR Architectes는 건축가가 아닌 예술가들과 자주 비교되곤 한다.

철을 주재료로 사용하며 특정 장소에 작품을 제작하는 조각가인 리처드 세라(Richard Serra)는 그들과의 유사성 때문에 많이 비교되는 작가이다. 또한, 실제로 그들이 영향을 받았다고 인정하는 프랑스 화가 피에르 술라주(Pierre Soulages)와 설치 예술가 월터 드 마리아(Walter de Maria) 등 건축을 넘어 여러 예술분야에서 RCR Architectes 건축의 특성이 발견된다.



건축의 확장성

4

바르셀로나 광역행정청(AMB)

□ 일시/장소 : '19.12.19(화) 10:00-12:00 / 바르셀로나 광역행정청 회의실

※ 통역 : 한국어 ↔ 스페인어 순차통역(박정석)

□ 참석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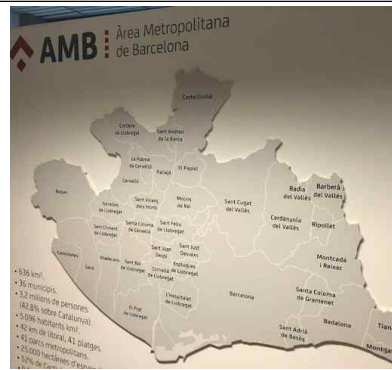
○ 우리 측(2인) : 강성민 부장, 김남훈 차장

○ 스페인 측 : 필라르 기타르 Pilar Guitar(대외협력담당) 등

□ 주요 논의사항

○ 공공건축 및 도시 프로젝트에서의 공공건축가 역할

○ 한국과 스페인간 건축인력 교류 제안 등



□ 기관개요

- AMB(Area Metropolitana de Barcelona)는 36개 자치단체의 도시, 교통, 환경, 주택, 경제개발, 사회통합 분야의 도시사업을 총괄 관리하는 공공도시행정기관
- 500여명의 직원으로 구성, 약 80여명의 건축가가 도시공간개선사업에서부터 주택, 건축 등 다양한 규모의 사업을 초기 기획단계부터 준공까지 담당

- 설립 : 2011년 7월 11일
- 공간범위 : 636km²의 면적에 320만 명이 거주하는 36개 시정으로 구성
- 목표 : 대도시 거버넌스의 합리화 및 단순화 추구
- 기능 : AMB는 시민 참여 및 경제사회 요원과의 협업을 통해 바르셀로나 대도시권에서 공공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능 수행
- 구성 : AMB 운영단 구성은 일반적으로 7월 말에 지방 선거 이후에 실시되며, 임기는 4년
- 기관규모 : 2011년 472명의 직원으로 시작하여 2017년 541명이 근무
- 지원사업 : 지방자치단체간 연결성, 이동성 및 기능성 향상에 필요한 균형적 영토 구조화 작업 개발, 공공임대주택 개발 촉진을 통한 주택접근 용이성 향상, 국제 협력 프로젝트 개발 및 기술 지원 등
- 기타사항 : 바르셀로나는 유럽도시에서는 드물게 산악지형으로 둘러싸여 있고, 최근 도시접근성 개선사업, 노후기반시설 활용사업, 보행로 강화 등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대규모 개발사업보다는 소규모 예산으로 시민의 삶의 질을 개선할 수 있는 도시공간개선 사업 추진 중



<AMB 사옥 전경>



<바르셀로나 대도시권>

□ 일시/장소 : ‘19.12.21(화)~22(일) 10:00-12:00 / 바이사(Baixa), 엑스포, 벨렘(Belem)wlr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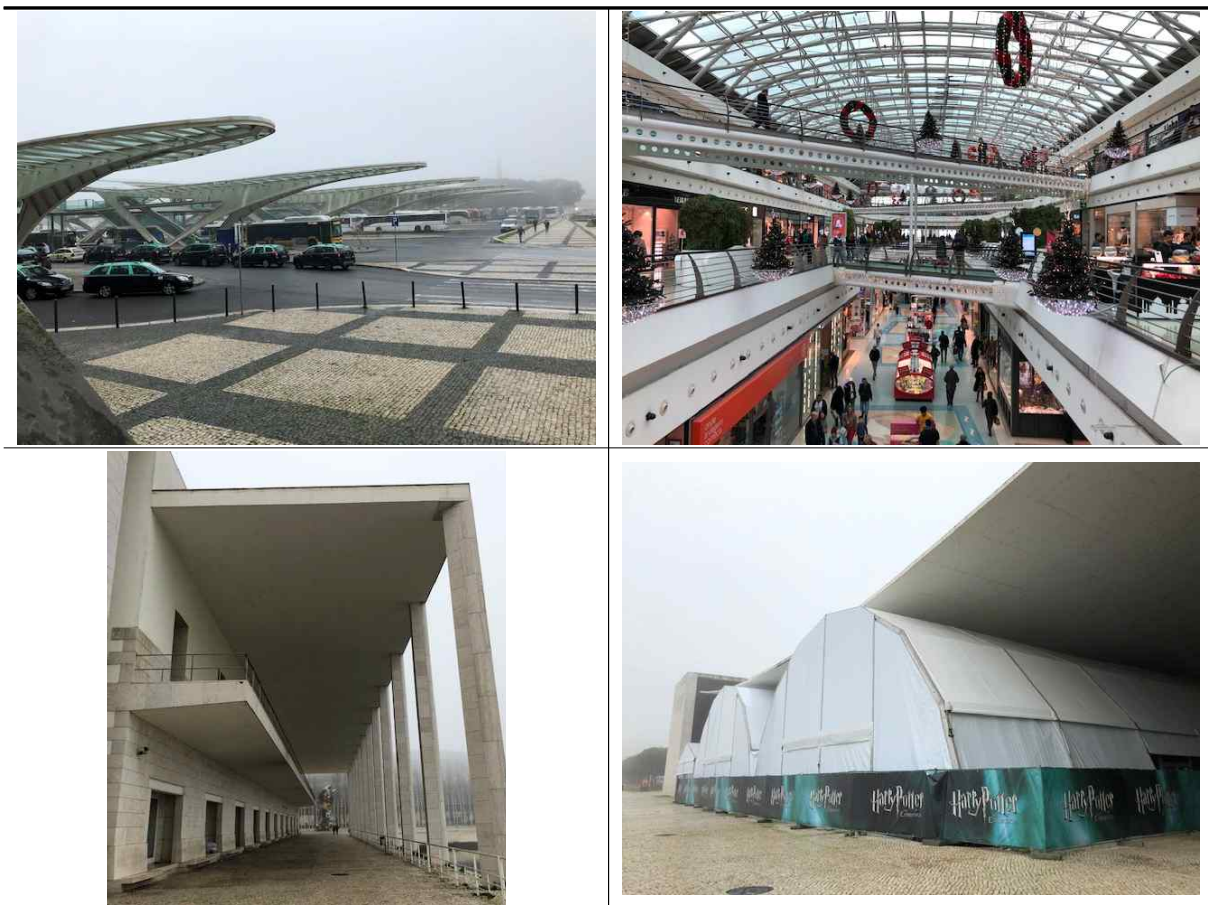
□ 주요내용 - 바이사(Baixa)지구, LxFactory 사례

- 리스본 중심지 도심에 위치한 바이사 지구는 아우구스타 거리를 따라 상가 등 편의시설이 밀집한 쇼핑거리로 보행자 전용으로 길이 조성되어 있으며, 산타후스타 엘리베이터, 로시우광장, 카르모 수녀원, 상조르즈 성 등 다양한 문화유산들이 남겨져 있는 문화유산지임.
- LxFactory는 1846년 제조공장 중 하나인 “Fabrication Blibonense” 라는 직물회사였으나 산업이 쇠퇴하면서, 공장을 디자인·그래픽회사에서 매입하여 활용함
- 패션, 광고, 커뮤니케이션, 미술, 음악 등 다양한 분야의 예술가들에게 저렴한 임대료로 제공



□ 주요내용 - 엑스포 지구(노후시가지정비 및 복합단지 조성)

- 리스본의 북동쪽에 위치한 엑스포 지구는 다 가마의 인도항로 발견 500주년을 기념하여 1998년 리스본 국제박람회를 개최하였고, 이를 계기로 2010년을 목표로 한 유럽 최고의 미래형 신도시를 조성한다는 목표로 완성된 주거·상업·업무·문화 복합단지임
- 1998년 10개년 장기 도시개발계획(60ha, 계획인구 25천인)에 따라 미개발 빈민지역이었던 이곳을 오리엔트 역과 연계하여 고밀도 주거단지, 대규모 바스코 다가마 쇼핑센터, 유럽최대 해양관 등 리스본의 신도시로 변모시킴
- 도시개발계획시 오리엔트역을 중심으로 대규모 환승센터와 쇼핑센터, 주택, 호텔, 오피스를 단지화하였다는 점이 특징이며, 엑스포지구 개발계획과 함께 리스본 서부에 위치한 알파마지구의 재정비를 함께 추진함으로써 리스본의 현대와 과거를 느낄수 있는 도시관광의 매카로 등장함



□ 주요내용 - 벨름 지구(리스본의 구도심)

- 리스본 중심지에 인접한 포르투갈의 대표적 문화지구로 1983년 유네스코 지정 세계문화유산인 제로니무스 수도원과 벨름탑 등이 있음
- 벨름지구는 현재 세계문화유산으로 관광산업이 발달되어 있지만, 타구스강과 도심 외곽지역에 위치하여 섬유, 제조업 공장들이 밀집해 발달했던 지역임
- 산업들이 쇠퇴·이전하면서 주변지역들이 점차 낙후되어 개발 또는 재생의 필요성이 제기됨
- 벨름지구에 주거지역을 시작으로 정비사업이 시작되었으며, 세계 문화유산을 활용한 관광산업도 함께 발달함
- 벨름지구의 강변은 공원으로 조성하여, 낮은 층의 건물로 규제하여 경관을 관리함
- 타구스강을 따라 폐공장들이 많이 남아 있으며, 이를 상업, 문화 용도로 사용할 계획임



IV. 시사점

- Barcelona Activa는 1986년 설립된 시청 산하기관으로 고용, 상업 및 관광 업무를 담당하고, 일자리 창출, 경제발전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임무수행하는 기관으로 경제기반형 도시재생 사례인 22@Barcelona 프로젝트를 수행중임
 - (인적/기술환경) IT기업체 집적에 따라 스마트시티 솔루션 구축
 - (기업참여) 매력적인 투자환경으로 인해 세계적인 글로벌 IT/에너지 등 기업 22개 스마트시티 솔루션 민간기업이 파트너로 참여
 - (장기적 계획) 장기적인 비전과 계획 및 목표설정, 단계별 추진
 - (거버넌스/총괄관리) 스마트시티 추진 관련 행정조직 일원화
- 카탈루냐 건축가 협회(COAC) 협회에서는 건축가의 의도가 아닌 도면의 테크니컬한 부분에 대하여 검토 시행하며, 건축관련 협회는 단독 협회만 존재. 사업승인권자의 업무과도 완화와 도면의 질적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해 국내 적용방안 모색도 가능함
- 바르셀로나 광역행정청(AMB)는 우리공사와 비슷한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으로 지속적인 네트워크 구축도 도움이 될 것임
- 2017년 프리츠커상을 수상한 건축집단 RCR은 30여년 동안 지역의 공공건축을 수행하며 지역주의 건축을 수행한 사례로 소도시를 재활시키는 지역건축사 제도를 고민해 볼수 있음
- 포르투갈 리스본 바이사, 엑스포, 벨렘지구의 사례는 기존 원도심의 역사유적과 현재 재개발되는 지구의 상호 관계와 상생기조를 살펴볼수 있음
- 무엇보다 금번 국제화 출장을 통해 스페인의 다양한 기관과 협업을 위한 파트너십을 구축할 수 있었으며 향후 더욱 다양한 국가와의 네트워크 구성을 통해 주택·도시계획의 발전에 기여하고자 함.

○ 레 콜스 앙상블(The Les Cols Ensemble)

레 콜스 레스토랑(Les Cols Restaurant, 2002)은 올룻에 위치한 자연친화적인 레스토랑으로 레 콜스 레스토랑 마르키(Marquee for Les Cols Restaurant, 2011)와 레 콜스 파빌리온(Les Cols Pavilions, 2005)과 바로 인접해 있다. 세 작품 모두 RCR Architectes가 설계하였으며 각각 다른 용도와 개성이 뚜렷하게 나타나기 때문에 그들의 건축적인 진화 단계를 한 장소에서 볼 수 있는 기회를 준다.

- (1) 건축과 경관의 관계성 : 레 콜스 레스토랑 옆에는 채소밭과 닭장이 있어 신선한 음식재료를 바로 사용할 수 있게 했다. 또한, 식당 안에서 이러한 목가적 풍경을 바라 볼 수 있게 했다. 그들은 이 작품을 “생각을 환기 시키는 프로젝트(The Project of Evocation” 라고 부르며 주변 경관의 시각적인 것 외에 촉각, 향, 소리 등 감각적인 느낌을 불러일으키도록 하였다고 설명한다.

레스토랑 건물은 오래되고 투박한 기존 농가를 리모델링하고 새로운 주방과 식당 공간을 증축 시켰다. 일부 공간은 대지 레벨보다 낮게 잠겨있다. 단층의 수평 적 형태로 전면이 모두 투명한 유리로 마감되어 주변 경관과 밀접한 관계를 형성한다. 입면의 얇은 수직 철판을 정교하게 휘어 출입구를 만들었다. 내부에서는 이 얇은 수직철판이 식당을 다양한 간격으로 구분하는 스크린 역할을 하며 마당의 나무들과 형태적으로 공명한다.



Topophilia -Les Cols Restaurant

레 콜스 레스토랑 마르키는 축하연, 단체모임을 위한 용도로 지어졌다. 지형을 우묵하게 파내어 그 위를 천막으로 덮은 형태이다. 땅을 파 나온 돌은 벽과 독, 보도 등 대지를 위해 재활용되었다. 이 프로젝트는 건물이 주변 경관과 완전히 일치하며 새로운 풍경을 만들어내는 RCR Architectes만의 색깔을 가장 잘 나타내는 작품으로 평가된다. 그들이 말하는 건축과 경관의 관계성이 가장 잘 드러났다고 할 수 있다. RCR Architectes는 이 건물이 살아나기 위해서는 사람들이 필요하다고 설명한다.

“우리는 건물 안에는 존재할 수 없는 공간, 사람들이 그날의 시간의 변화와 기후의 변화를 느낄 수 있는 장소, 비와 빛이 달라지는 것을 분 단위로 알아볼 수 있는 장소를 만들고 싶었다.” 그들은 사람들이 이 공간에서 색다른 경험을 할 수 있기를 바랐다. 건축이라고 정의하기 모호한 작품이다. 구조체이기도 하면서 공간을 형성하며, 건축과 자연의 공생이라는 RCR Architectes의 건축적 특성을 설명하기에 가장 적합한 사례이다.



Topophilia - Marquee for Les Cols Restaurant

레 콜스 파빌리온은 레 콜스 농장의 고립된 구역에 높은 덩굴손 벽으로 둘러싸여 있어 도심 속 오아시스 같다. 이곳은 휴식을 취하는 숙박시설이지만 낮보다는 밤하늘의 전경을 즐기는 공간이다. 외부로 완전히 노출된 비현실적인 분위기이지만 그만큼 주변 자연과 직 접적인 관계를 형성한다.



Topophilia - Les Cols Pavilions

(2) 단일한 재료 : 레 콜스 레스토랑의 내부는 모두 철로 마감 되어 있으며 의자와 테이블까지도 모두 철재를 사용하였다. 차가운 물성의 재료를 사용했음에도 불구하고 내부의 분위기는 따뜻하며, 철제 가구를 이용하지만 편안하다. 재료를 물성 그대로 구축하지 않고 환경을 만들어내는 기본적인 바탕으로만 사용하였다.

철이 가진 물성은 그들이 원하는 분위기를 얻기 위한 매개 (Mediation) 로 활용됐을 뿐이다. 조리실은 화실과 같고, 의자와 테이블은 형태가 펼쳐진 꽃잎과 같으며, 중심공간의 철제 커튼월은 자연의 파동적인 움직임을 나타낸다. 그들 나름대로의 추상적 방식을 통해 자연을 내부에 도입하였다.

레 콜스 레스토랑 마르키는 강철 파이프와 투명한 패널과 막 (membrane)으로만 이루어져 있다. 다양한 지름의 강철 파이프가 공중에서 부드러운 곡선을 그리며 양쪽 독을 연결시켜주고 그 위를 반투명 플라스틱 막이 덮여 진다. 그리고 고분자(polymer) 패널이 이 장소의 투명한 벽 역할을 하여 영역을 제한한다.

벽과 지붕이 모두 투명 하지만 유리의 차가움과 단단함은 존재 하지 않는다. 주변 의 풍성한 자연과 내부에 심어진 나무는 경계를 더욱 모호하게 만든다. 지붕의 플라스틱 막은 소음을 차단해주고, 햇빛을 절반이상 걸러준다. 플라스틱 막에는 10cm정도 공기층(air space)이 형성되어 있어 내부 온도를 조절해 주며 음향적인 효과도 향상시켜준다. 주방과 화장실의 벽은 현무암으로 마감되어 투명한 재질과 대조를 이루며, 건물이 공중에 떠있는 느낌을 준다.

이러한 비물질적인 형태, 투명한 아크릴로 된 가구, 그리고 은은

한 조명으로 인해 밤에 건물은 숲 속의 안개와 같다고 표현한다. 건물은 사라지고 얇은 나무의 몸통으로 지지된 공간이 오직 사람들에게 의해서 활성화 된다. 레 콜스 파빌리온은 초록색 금속 막대, 라미네이트 유리, 철로 높은 울타리를 만들고, 그 사이에 지붕을 덮었다. RCR Architectes는 원래 이 장소의 있던 과수원에서 영감을 받아 건물을 배치했다고 말한다. 인테리어는 투명하고 가구는 침대 뿐이다.

바닥 역시 투명 한 유리판으로 마감되어 있기 때문에 마치 검은색 화산토(volcanic soil)를 직접 밟는 느낌을 받는다. 육조는 대지 아래로 가라앉아 있어 자연 속 흐르는 개울 안에 몸을 담그고 있는 듯하다.

○ 토솔스-바실(Tossols-Basil)

토솔스-바실은 올룻의 플루비아 강(Fluvia River)을 따라 도시와 공원의 경계에 위치한 스포츠 레저시설로 육상트랙, 관중석, 파빌리온으로 구성되어 있다.

- (1) 건축과 경관의 관계성 : 토솔스 바실 육상 트랙 (Tossols-Basil Athletics Track, 2000)은 주변 경관의 아름다움을 최대한 이용한 자연친화적인 트랙으로 선수들이 자연에 파묻힌 환경에서 운동할 수 있도록 설계하였다. 관람객 좌석도 소규모의 단이나 빈터 사이의 경사면의 형태를 취함으로써 경관과의 밀접한 관계를 해치지 않도록 계획하였다고 한다.

트랙 안쪽에까지 기존의 나무가 보존되어 있어 육상선수들이 트랙을 돌 때 나무들 사이로 사라졌다가 나타난다. 계절에 따라 햇빛이 나무의 무성한 잎에 의해 조절되기 때문에 나무는 불투명, 반투명, 혹은 투명의 필터가 된다. 이처럼 트랙 주변의 자연도 하나의 건축적 요소로 작용하여 건축과 장소가 대등한 관계로 공존할 수 있음을 잘 보여준다.

스포츠 시설에서 나오는 관중들의 환호, 흥분, 집단적인 소음과 기존의 숲에서 느껴지는 고요함, 고독, 편안한 분위기 등이 어우러진

새로운 경관을 통해 건축과 자연의 색다른 공생관계가 형성된다.



Topophilia - Tossols-Basil Athletics Track

플루비아 강변에 있는 토솔스-바실 베싱 파빌리온 (Bathing Pavilion Tossols-Basil, 1998)은 레 콜스 레스토랑의 야외 피크닉 장소로 활용되고 있는 구조물이다. 수평적인 형태로 땅에 뿌리를 내리고 동시에 다양한 프레임을 통해 주변과 긴밀한 관계를 만든다. 프레임구조는 사용자 시선의 각도에 따라 경관을 다르게 보여준다.

여러 개로 나누어진 보이드 공간은 오히려 뒤편의 나무기둥에 시선을 집중시키며 자연과 건축의 관계를 공고히 만든다. 프레임으로 잡힌 원경과 근경의 나무줄기들이 중첩되어 깊이감을 강조한다.



Topophilia - Bathing Pavilion Tossols-Basil

- (2) 단일한 재료 : 토솔스-바실 베싱 파빌리온은 구조물 전체가 철재로만 마감되어 있으며 비가 온 후에는 바닥에 주변 경관이 반사되어 자연을 직접적으로 담아내기도 한다. 단일한 재료의 구조물은 자연과 인공, 비정형적인 형태와 기하학적인 형태 무한과 유한 사이를 중재하는 역할을 하며 또 다른 경관을 만들어낸다.

(3) 건축의 확장성 : 토솔스 바실 육상 트랙은 육상 경기장 외에도 이 장소를 활용하는 사람들에 따라 휴식을 취하는 정원이 되기도, 어린이들에게 수목을 가르치기 위한 교육의 장이 되기도 한다. 인식하기에 따라 장소는 건축의 범주를 넘어 확장되며 활성화된다. 베썸 파빌리온은 야외에 설치된 하나의 조각 작품과도 같다. 파빌리온을 감상함과 동시에 주변 자연에도 시선이 집중 되어 새로운 시각적 효과를 불러일으킨다. 사람들이 쉴 수 있도록 휴게공간을 제공해주기도 하며, 야외활동을 즐길 수 있는 커뮤니티시설로서의 역할도 한다.

○ 솔라즈 미술관(Soulages Museum, 2014)

‘빛’의 화가라고 불리는 프랑스 작가 피에르 솔라주 (Pierre Soulages)는 검은색을 주로 사용하며 RCR Architectes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었다. RCR Architectes의 수채화 스케치와 솔라주의 작품이 실제로 유사한 것을 볼 수 있다. 솔라즈 미술관은 그의 고향인 프랑스 남부도 시, 로데즈(Rodez)에 위치해 있다.

(1) 건축과 경관의 관계성 : 대지는 남북 방향으로 레벨 차이가 큰 경사지이다. 미술관을 중심으로 동쪽은 붉은 갈색의 석재로 지어진 성당이 위치한 구도심과 서쪽은 현대 건물이 많이 들어선 신도심으로 대조적인 풍경을 보여준다. 건물은 다섯 개의 다른 크기의 강철 박스가 언덕의 중간에 끼워져 있는 형태로 경사진 레벨의 대지 양쪽을 연결한다.

박스들 사이는 비워져 있고 외부계단을 통해 서로 연결된다. 레벨이 높은 대지는 남향으로 공원과 접해있으며 건물이 낮고 넓은 형태로 수평적이다. 반대로 레벨이 낮은 대지는 박스들이 언덕을 지지하며 캔틸레버 구조로 떠있으며 수직적인 느낌이 강하다. RCR Architectes는 내부에서도 외부의 경관을 감상 할 수 있도록 북쪽으로 넓은 창을 계획했지만 얇고 어두운 천을 덧대어 작품에 직접적인 피해를 감소시켰다. 천창을 통해 자연광을 간접적으로 유입시켜

내부의 조도를 유지하였고, 작품을 공중에 매달아 관람객들이 그림 속을 걷는 듯한 느낌을 주었다.

- (2) 단일한 재료 : 외부 철재는 시간이 지나 부식이 되면서 생긴 음영이 솔라주의 작품을 연상시키며 주변 공원과도 조화를 이룬다. 내부는 흰 벽을 사용하지 않고 바 닥, 벽, 천장까지 철재로 마감되어 있으며, 무광인 외부 마감과는 달리 자연광과 조명에 반응하여 마치 빛과 그림자가 살아 숨 쉬는 느낌을 준다고 표현한다. 수직으로 긴 창 아래는 마찬가지로 철로 된 앉는 공간이 마련되어 있다.



Soulages Museum

3.4 라 리라 영화관 공공시설(La Lira theatre public domain)/벨-록 포도주 양조장(Bell-lloc Winery)

라 리라 영화관(La Lira theatre public domain, 2011)과 벨-록 포도주 양조장(Bell-lloc Winery, 2007)은 단일 재료를 활용한 특성이 가장 강하게 나타나는 작품이다.

- (1) 건축과 경관의 관계성 : 라 리라 영화관은 히로나 주 리폴(Ripoll)에 위치해 있으며 기존의 영화관을 철거하고 공공 문화시설로 활용하고 있다. 건물 전체를 감싸는 철재 프레임 구조를 반복적으로 사용하여 주변의 건물과 대조를 이루며 도시에 활력을 불어넣어 준다. 이들이 사용한 건축적인 프레임은 한정적인 범위 안에서 도심을 확대시켜 들여다보게 하면서도 반대로 멀리 있는 경관을 감

상하게 한다.

기존의 영화관을 기념하는 듯한 이 프레임 구조는 풍경을 담아내는 도구이면서 사람들을 건물로 끌어들이는 역할을 한다. 벨-록 포도주 양조장은 히로나주 팔라모스(Palamos)에 위치해 있다. 건축과 자연의 공생관계는 양조장이 위치한 지하로 가는 길에서 일어난다. 이 길은 포도원과 숲의 경계를 따라 나 있으며 또 다른 하나의 경관을 이룬다. 이곳에서는 모든 감각을 경험할 수 있다고 표현한다. “정적을 들을 수 있고 포도주의 향기를 감지할 수 있으며 건축 재료들의 강도, 온도의 변화를 느끼면서 희미한 빛과 그늘도 경험할 수 있다



La Lira theatre public domain



Bell-Iloc Winery

- (2) 단일한 재료 : 라 리라 영화관과 도심 사이를 잇는 철제 다리는 양쪽이 비대칭적인 형태이다. 한쪽으로부터 철제 사이의 좁은 틈을 내어 아래로 흐르는 강물이 보이면 서 자연의 존재를 부각시켜 준다. 세월이 흐르면서 철이 녹이 슬고 점차 오래된 도시의 모습과 닮아가고 있다. 프레임 구조의 틈새로 식물들이 타고 들어와 인공과 자연 이 공생하는 관계가 형성되었다. 벨-록 포도주 양조장은 흙과 철의 속성

이 감각적으로 상호작용하는 작품이다. 산책로의 지붕은 재활용한 강철판을 비스듬하게 덮어서 만들었다. 철판 사 이에 좁은 틈을 만들어 자연광이 스며들어 오도록 했다. 동굴과 같은 지하 공간에도 빛 줄기가 들어와 성스러운 분위기와 공기의 흐름 등을 느낄 수 있다.

- (3) 건축의 확장성 : 벨-록 양조장은 하나의 건축물이라기보다 대지 전체가 주변과 새로운 경관을 이루며 양 조장을 형성한다. 양조장까지의 경로는 산책로(promenada) 와 같다. 하나의 길이 이 구역의 여러 건물들을 연계시키며 사람들이 숲속과 마을을 산책하듯 계획이 되어있다. 양조장은 용도가 다양하다. 양조장이지만 길이며, 극장, 강당, 다목적 홀이 되기도 한다.